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온 지는 열달이 채 안되었는데 저희는 벌써 두번의 추수를 경험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세번째 모내기가 시작되겠지요? 말로만 듣던 삼모작을 매일 눈앞에서 빨리감기하듯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신기한지요!

지난번 편지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십년만에 가장 강력했다는 싸이클론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탓인지 커다란 전신주가 넘어져서 며칠간 정전이 된것을 빼고는 큰 피해나 어려움없이 지나갔습니다.



(거센비바람에 새둥지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부리채 뽑혀서 한동안 물을 쓸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병원에 온 스태프 한 명의 당뇨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깜짝 놀라 물었더니 매해 이맘때 쯤이면 늘 그렇다는

겁니다. 망고를 너무 많이 먹는 탓이라나요!
ㅎㅎ



(한번 비바람이 치면 망고가 수북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도저히 다 기억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망고들이 지천인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달엔 리치를 먹는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망고가 끝나갈 즈음이면 곧 잭푸룻이 다 익어서 저희를 즐겁게 해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앞의 울창한 리치 나무입니다. 한동안 리치를 먹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두리안과 비슷하게 생긴 잭푸룻 나무입니다)

같은 서남아시아이긴 하지만 인도에서는 북쪽 산악지대에서 지냈던 까닭에 이토록

풍성한 열대 과일들은 처음이라 또다른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가운데 연락을 해
주신대로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서남아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를 격리병실에 입원 시킨후 PPE 를
착용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20 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일일 확진자도 4000 명 선에서 왔다갔다
하며 줄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더
늘지 않는 큰 이유는 하루 검사가능 건수가
15000 케이스 밖에 되지 않아서인데
검사받은 사람의 20% 이상에서 양성확진이
되는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7 월말쯤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곤 해서 그마저도 썩 신뢰가
가는것은 아닙니다.

저희 병원이 위치한 마을도 매일
몇십명씩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저희
병원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합니다.



(간호사도 저희도 우주복 같은 PPE 를 입고
진료하다 보면 순식간에 땀으로 목욕을 하곤 합니다.)

여기까진 객관적인 보고였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주전 국내선 비행기가 운항을
재개했을 땐 주위 사람들의 우려섞인
시선을 뒤로한채 다카에 가서 한국
식료품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식당들이 아직은 문을
닫은채여서 며칠전부터 설레며 기대했던
한국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래도 거의 5 개월만에 단
1 박 2 일의 짧은 시간이나마 병원을
벗어나 바깥 공기를 쐬니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사실 요즘 저희의 기도제목은 거의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어떤 신분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NGO 비자를 받는 순서는 제일먼저 본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3 개월의 임시비자를 주고, 그 임시비자를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들어온 후 새롭게 정식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제일 첫 관문이 일종의 신원조회이고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노동허가를 받고, 그 노동허가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작년 10 월 3 개월 단수 임시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후 저희는 첫 단계, 신원조회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20 년 넘게 섬기고 있는 다른 분들도 거부를 당한걸로 보아서 저희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듯하고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의 NGO 정책에 기인한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 남부에는 100 만 가까운 로힝야 난민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전세계에서 수많은 NGO 가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단체들이 들어 오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참에 NGO 를 좀 정리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듯 합니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NGO 비자의 수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 버렸고 저희가 비자를 신청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지요. 거부당한 신원조회를 다시 어필하는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오피스가 락다운 되면서 저희의 서류절차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최근 봉쇄가 풀리고 관공서 업무가 재개되긴

했지만 앞으로의 비자 상황에 대해선 대체로 비관적인 기류입니다.

지난 주엔 저희 병원의 디렉터 자매가 현지 형제와 함께 NGO 국의 최고담당자를 만나 코로나상황 가운데 저희 병원, 특별히 외국인 의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 일해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비자문제에 선처를 부탁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조회는 NGO 국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도 고마움은 표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고 다만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 편지를 쓰면 좋은지, 누구한테 그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정도의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의 비자 문제는 아직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마냥 기다리는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일단 돌아가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건지...모든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나갔다간 다시 돌아 오지 못하는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과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매일 교차됩니다.

큰 딸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무사히 면허도 따고 졸업도 하고 7 월 1 일 부터는 수련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기전 부터 아름다운 교회공동체, 특별히 스교에 뜻을 둔 교회공동체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모임이 원활치않은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한 지역 교회의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처음으로 그교회의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조인하게 되었는데 그 그룹의 리더되시는 연세드신

커플이 그 교회 소교팀의 리더이실 뿐 아니라 교회에서 여섯 가정이나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희의 비자문제를 나누었을 때 한 자매의 강력한 기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인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 기도엔 너무 힘이 되었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기도의 짐을 지워드리고자합니다. 저희의 거부된 신원조회가 다시 승인이 나고, 노동허가, 비자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이곳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겐 이걸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때론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끝난 저희 소그룹 성경공부의 주제는 다니엘, 불 가운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관통하는 주제가운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망고나 잭프룻같은 과일 말고도 제가 한번도 보지 못한 이름 모를 열대 꽃들도 저희들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아침저녁 병원으로 가는 짧은 길에서 만나는 꽃들 때문에 하루가 밝아지곤 합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죽으라는 법은 없네~. 아무리 상황이 저희를 죽으라고 흔들어도 주님께서는 작은 꽃들 가운데서, 누군가의 짧은 격려의 말 가운데서, 오늘 아침 읽은 묵상집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여기있다. 생명의 근원, 생명자체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 the last word 는
언제나 주님것이고 그건 언제나 생명이고
선이고 정의이니깐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하루
하루를 힘차게 용감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신원조회 재심청구에서 호의적인 결과를
얻어 비자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2.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코로나 감염상황
가운데 병원의 환자들과 스태프들을
초자연적인 보호막으로 지켜 주시기를
3. 계속 정체 상태에 있는 치과오픈 준비가
다시 재개되어 가장 적합한 때에 치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2020 년 7 월 7 일

신창은, 태희 올림